

도서관 밖으로 나온 책, 시민의 일상 속으로

광양시, 축제·공원 찾아가는 '팝업도서관' 운영
광양매화축제로 팝업도서관 '비밀의 정원' 첫 선

광양시는 축제와 공원 등 시민이 모이는 생활 공간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동형 독서공간 '팝업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팝업도서관'은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조성되는 이동형 도서관으로, 사서가 큐레이션한 도서를 현장에서 자유롭게 읽고 독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독서 공간이다.

광양시는 2026년 지역축제와 공원 등 시민이 모이는 생활 공간에서 이동형 서가와 독서 프로그램을 결합한 팝업도서관을 총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야외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 축제 속 읽는 공간, 「비밀의 정원」

팝업도서관 운영의 시작은 3월 13일부터 열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다.

매화문화관 뒷마당에서 운영되는 팝업도서관「비밀의 정원」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이 잠시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마련된 야외 독서 공간이다.

행사장에는 「비밀의 정원」 콘셉트에 맞춘 테마 도서와 빈백, 텐트 등을 비치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책 읽기에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를 비롯해 감성 포토존과 필사 코너 등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매화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꽃이 피어 있는 봄 풍경 속에서 책을 읽는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린이날, 독서의 출발점을 만들다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시립도서관의 독서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통합 홍보 부스를 중심으로 팝업도서관을 운영한다.

'책과 크는 아이'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부스에서는 출생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독서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북스타트 선정 도서를 현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광양시의 생애주기별 독서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AR·XR 기반 체험형 팝업도서관 운영

하반기에 열리는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에서는 AR·X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팝업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책놀이 콘텐츠를 통해 읽기와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독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듣기·말하기·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독서환경 속에서 새로운 독서 활



동의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 야외도서관 '공원에서' 확대 운영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LFA울렛 잔디광장에서 처음 선보인 야외도서관 「공원에서」도 올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책과 머무는 따뜻한 하루'를 콘셉트로 기획된 「공원에서」는 빈백과 원목 텐트를 활용해 야외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조성됐다.

지난 행사에서는 시민 참여형 독서 공모전과 버블쇼, 마술 공연, 만들기 체험 등이 함께 진행됐으며 약 3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디지털기기를 반납하고 일정 시간 책 읽기에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프로그램이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광양시는 올해 더욱 다양한 야외도서관 콘텐츠를 선보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원에서」를 광양을 대표하는 야외 독서문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최근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보 접근 방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깊이 읽고 생각하는 독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역시 시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팝업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휴식과 소통을 경험하고 독서를 일상 속 즐거움으로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팝업도서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 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야외도서관 운영을 비롯해 신생아를 위한 '생애 첫 책' 배송 서비스, 온라인 독후활동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광양/신선호 기자

올해 '광주 국가유산 야행' 4월 24~25일 개최 옛 전남도청 일원, 10주년 맞아 '세 개의 시간' 주제 구성

광주 동구는 '2026 광주 국가유산 야행'을 오는 4월 24~25일 양일간 옛 전남도청 일원과 광주서석초등학교, 빛의 읍성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 국가유산 야행'은 동구가 보유한 국가유산과 지역 역사를 활용한 야간 문화향유 축제로, 지난 2017년 첫 개최 이후 광주를 대표하는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야행 행사에는 3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이번 야행은 '세 개의 시간'을 주제로, 광주의 과거·현재·미래를 하나의 서사로 엮어 선보인다. 사라진 광주읍성의 시간, 근현대사의 굴곡을 간직한 옛 전남도청의 시간, 광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서석초등학교의 시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가 간직한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나아가 시민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국가유산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달빛 아래에서 광주의 역사를 걷고, 보고, 느끼는 특별한 야간 문화축제로 운영



할 방침이다.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광주 국가유산 야행 누리집(www.gjnigh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체험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국가유산과 역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광주의 시간을 함께 걷는 특별한 밤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남들과 다른 선택, 사잇길로 들어선 그들만의 예술!

'국악이 좋다' 3월 14일 사이로 초청공연 <재담 Rope Dancing>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3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전악당에서 사이로 초청공연 <재담 Rope Dancing>을 선보인다.

"사이로"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소속 단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단체명은 그들만의 새로운 음악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의 '사잇길'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이로"는 2019년 "만복사저포기"를 시작으로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 <재담-rope dancing>은 마지막 광대로 알려진 이동안(1906~1995) 명인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김인호의 예능 중 재담과 줄타기를 소재로 한 창작 공연이다.

'줄 위를 걷는 인생'을 음악과 연희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삶은 언제나 균형과 불안, 웃음과 긴장의 반복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오봉산타령과 경기민요를 중심으



로 풀어내는 삶의 희로애락과 재담과 연희자의 몸짓이 결합하여, 보이지 않는 '줄'을 관객의 상상 속에 생생하게 구현한 구성은 인상적이다. 또한, 몽골의 전통악기 '마두금'과 서양악기 '트럼펫'을 활용한 곡 구성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2290만 원을 확보하며 지역 문학 기반 강화와 시민 참여형 문학프로그램 확대에 나선다.

나주시는 백호문화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전국 문학시설에 문인을 상주시켜 창작활동과 문학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 사업

나주시, '2026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5월부터 시민 대상 문학체험프로그램 운영... 상주작가 공개 모집

이다.

올해는 전국 171개 문학시설이 응모해 98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선정 기관에는 상주작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백호문화관은 오는 3월 상주작가를 공개 모집한 뒤 5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다

양한 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작가 탄생', '책 읽는 토요일', '시를 그리다', '재봉틀과 자전거', '나주스토리' 등 창작과 독서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넓힌다.

나주시 다시면에 위치한 백호문화관은

조선 중기 문인 임제의 문학정신과 작품 세계를 기리는 공간으로, 전시실과 도서실, 체험실, 집필실을 갖추고 연중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문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백호임제문학상을 비롯해 전국 어린이 글짓기대회, 한시 강독, 시 창작 교실, 청소년 문학 체험 교실 등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 문학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나주/이명열 기자

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부지원

보다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